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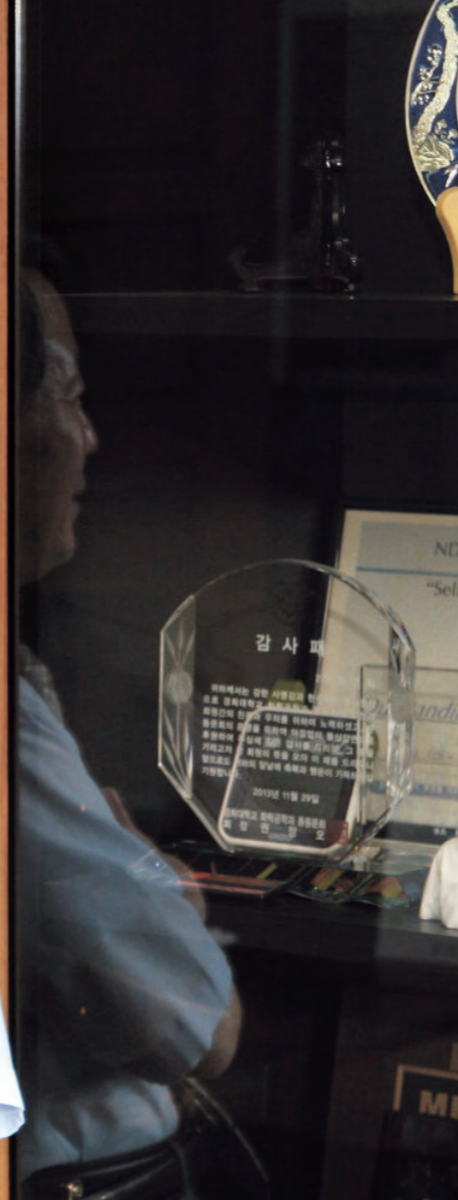
# Company

> ㈜코린스 홍영화 회장



홍영화 회장

David Hong, Chairman of Korins Inc.



## 세계 최초 '스마트 무선 에너지미터 SEM3000' 개발

World's first 'Smart Wireless Energy Meter SEM3000'

기승하는 불볕더위와 열대야 현상으로 가정을 비롯한 영업장, 산업체 등에서 냉방기기를 주야장천 가동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크게 폭주하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불안감 또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혹은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 유지하지 않고 있는 각 매장과 상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블랙아웃'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실천 역시 중요해 보인다. (주)코린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무선 에너지미터를 이용한다면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희소식이다.

글 | 정시준 기자 jungsjun@naver.com



### Reborn as a developer of electricity measuring instrument

Korins has been providing the world's major measuring instruments such as German made Testo, Galltec and British made Micronics to Korea s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under the name of Korea Measuring Instruments in 1983. But Korins started their own research & development in order to localize the instruments from 1992 and as the result they received grants from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uccessfully developed a smart energy meter by using LCD display in 2013. "We are aiming to leap forward by turning into a developer from a provider and we promise to help to overcome the nation's power shortage" said Hong.

Korins' Smart Wireless Energy Meter SEM3000 monitors the electricity usage of a building in real time and even marks the amount of money it has spent. Sensors can be installed up to 10 places on a meter, electric light an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measure up to 30M of electric power. It also monitors the usage when a household appliance goes on and off and forecast the electricity bill. It provides electricity graphs for up to 10 household appliances by connecting to a PC or smart phone. Consumers can control and receive the information of their daily, weekly, and monthly electricity (also midnight electricity) usage via SNS and email. "People can effectively save on their household electricity bill and prevent unnecessary wastage in a work place after leaving the office by a remote control through a smart phone" said Hong. It also protects environment as it monitors the amount of CO2 generated and the amount of energy saved.

### 전력계측기 공급 업체에서 개발업체로 거듭날 것

코린스는 1983년 한국계측기라는 상호를 내걸고 독일의 테스트, 피닉스, 갈텍, 영국의 마이크로닉스, 빅터 등 세계 유수의 계측 장비들을 국내에 공급해 왔다. 1992년부터는 전력 장비의 국산화에 눈을 돌려 오랜 시간 연구 개발에 매진해 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LCD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스마트 에너지미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제는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개발업체로 제2의 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차원의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을 함께하며 앞으로는 더 좋은 제품으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린스가 야심차게 선보인 '스마트 무선 에너지미터 SEM3000'은 각 가정이나 건축물,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터링하여 전기사용은 물론 전기사용금액까지 표시해주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제품이다. 각 가정에 계량기, 가전제품, 전등 등 최대 10개소까지 센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선으로 최대 30M까지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전제품이 켜지거나 꺼지면서 변화되는 전력량 및 전력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PC와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최대 10개 가전제품의 전력 그래프를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다. 또한 1차원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뛰어넘어 필요시에는 제어가 가능하게 제작되었으며 일간, 주간, 월간 전기 사용량 혹은 불필요한 심야 전기 사용량을 SNS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가정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좋고,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소비되고 있는 전기량을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원격으로도 제어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CO2 발생량과 절약량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며 더욱 능동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 해외시장 개척 위해 판매망 구축에 총력

‘스마트 무선 에너지미터 SEM3000’은 지난 5월 국제전기전력전시회에서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각 분야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전력 스마트그리드(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 무선 에너지미터 SEM3000’의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흥영화 회장은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기존의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라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하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에 희망을 걸고 있다. “30여 년간 국내시장에 계측기를 공급해 온 코린스만의 영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판매망 구축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IT기술과 접목한 전력 스마트그리드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일본, 유럽, 미국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성장세를 낙관하고 있는 흥 회장은 멀지 않은 시일에 코린스의 코스닥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아낌없는 투자와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물인터넷, 스마트 홈, 유비쿼터스 제품을 차례로 시장에 선보이며 궁극에는 빅데이터 사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에어컨 없이는 단 몇 시간도 참아내기 힘든 폭염 속에서 누진요금제로 인한 폭탄 요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무선 에너지미터 SEM3000’이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 Developments in setting up sales network in the world

Smart Wireless Energy Meter SEM3000 aroused an echo in Global Electric Power Tech 2014 held at Coex, Seoul, last May. As the interests in saving energy from various industries in the world has been increasing and the expectancy on Electric Power Smart Grid (the next generation intelligent electricity network that optimize energy efficiency by exchanging information between provider and consumer in real time) is higher, the demand for Smart Wireless Energy Meter SEM3000 will also be increasing. However, Hong is planning to develop an overseas market due to the domination of existing suppliers in the domestic market. “We expect that it might be easier to find an overseas market because we already have many experiences of supplying measuring instruments in Korea for 30 years and our business know how. Especially, the world is acknowledging Korea’s topnotch Electric Power Smart Grid and we can aim at markets in Japan, Europe and the US” said Hong. With this confidence in mind, he is forecasting a possibility for Korins to be listed on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Hong also mentioned about his ambition to invest and develop new products and introduce Internet of Things, Smart Home and Ubiquitous in cooperation with other global companies and eventually lead the big data business. We are living in the age that is hard to get on without an air-conditioner and it seems that Korins’ Smart Wireless Energy Meter SEM3000 will be one of the must-have items as well as it will spare people from an excessive electric bills bomb.

